

[목회자 모임]
창조목적 - 하나님 나라(건축)

2018. 6. 1. 이현래 목사님

오늘은 건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건축, 즉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전에는 내가 그것을 몰랐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성경공부를 하니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한 것 같다.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경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다. 나만 그랬는지 다른 분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다.

카톨릭은 땅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왕국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는 그 것이 없다. 왜 없는가? 땅위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말세에 수직적으로 내려 올 하나님 나라니까 자연히 말세론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해프닝이 여러 번 벌어졌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왜냐하면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다시 오시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니깐 막연하지 않겠는가? 92년도에도 우리나라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10월 28일에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사람들이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장로교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가을에 광양에 있는 동생을 일부러 찾아왔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을 다 퇴학시키고 공중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사건이다. 그 동생이 형님은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느냐고 물으니깐 자기 손바닥에 두 번이나 92 10월 28일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어떻게 안 믿겠냐고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서울에 있는 목사인데 시골까지 찾아오셨다. **교회 목사였다.

그날 밤에 모두 자기 옷에 넘버를 붙이고 들어가면서 잘 있으라고 했다. 오늘 밤 1시가 되면 우리는 휴거하고 옷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MBC방송국에서 와서 촬영도 했다. 그런데 1시가 지나도 휴거가 안 되고 말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또 하고 또 한다. 답이 거기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신교에는 답이 예수님의 재림에 밖에는 답이 없다.

카톨릭은 그럴 일이 별로 없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왕국이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인간은 안 된다는 그 전제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속에서 성경을 읽으니깐 모든 것이 해답이 없다. 완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두고 보자는 놈은 뭘 해도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다. 두고 보자는 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탱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겠는가? 땅위에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했지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뭘 하러 창조를 하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된다. 불완전한 일이 된다.

사역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목표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미선교회를 다 지지했다. 막상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날짜를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변명하고 끝났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있다는 이야기다.

성경에는 해답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사람처럼 된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갈 데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이 천당 보내는 대기소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 창조된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재료들을 말한다. 건축의 재료들을 말한다. 건축을 하려면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 재료들이 서로 연합될 수 있는 재료들이어야 하고, 또 건축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이 다 구비되지 않으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당을 건축해보니

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다.

첫 번째 창조는 건축의 재료들을 창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한 가지만 설명한다면 가령 빛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식물이 나온다.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풀처럼 강인한, 식물처럼 강인한 생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날짐승과 물고기들이 나온다. 그것은 활동하는 생명이다. 날짐승이 나는 것을 매일 아침 보면서 저놈들은 얼마나 힘이 좋으면 공중을 날아다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면 요란하다.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새들은 공중에서 장난을 한다. 짹짹기를 공중에서 한다.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명이 역시 또 건축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땅을 밟고 기어 다니는 동물들이 나온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는 또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그렇게 생각해보면 1차적인 창조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재료들을 생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하나가 그냥 있으면 건축이 안 된다. 이것들은 만드실 때마다 다 들이 연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어느 하나도 그렇게 안 된 것이 없다. 단성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사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자기 몸에서 자가 수정을 한다. 혼자되는 것이 없다.

불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불교는 연합 보다는 홀로 서는 것이다. 유아독존이다. 오로지 의식하는 나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유아독존이다. 누구와 연합해서라는 말이 없다. 오히려 연합을 싫어한다. 또 그런 길을 가는데 연합이 될 수도 없다.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을 보면 연합이 아니다. 다 자기 대로 남보다 우수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똑똑한 것이다. 다 남과 다를려고 생각하고 똑똑해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 없다.

사탄은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였는가? 각자 다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그것을 먹은 이상 모든 사람은 기회

만 있으면 자기가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는가? 똑똑할수록 연합이 더 안 된다.

신앙도 제일 좋을수록 연합이 안 된다. 목사일수록 제일 연합이 안 된다. 제일 연합이 안 되는 곳이 목사이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깊이 파헤쳐 보면 선악과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절대로 연합이 안 된다. (목사님들께서 박장대소) 왜 그렇게 웃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재료들은 모두 연합적인 재료들이다. 콩도 두 조각으로 되어있다. 두 조각이 연합하여 싹이 나도록 되어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해놓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둘이 연합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창조는 얼른 보면 생식을 위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똑같다.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것일 뿐이지 원료는 다 똑같다.

콩이 두 조각이 합해서 싹이 나나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자식이 나오나 똑같은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모양은 여러 가지이고 생명체도 여러 가지이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다. 둘이 합해서.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생육할 수도 없다.

남자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정자뿐이다. 아무리 생산해도 며칠을 못 간다. 그리고 여자가 생산하는 것은 난소다. 난소도 생명체이지만 홀로 놔두면 며칠을 못 간다. 다 죽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합해지면 최장 120년은 산다. 신기하지 않은가! 홀로 있는 것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둘이 합해진 것만 영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건축의 재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그 안에 반드시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연합하여 번성할 수 있도록 지어져있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다 멸망이다. 다 없어져 버린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다. 건물만 텅텅 비어있다.

사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건축을 목표로 하는 사역이라야 진짜 사역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건축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도 결국 건축이다. 출애굽의 핵심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막을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자리가 없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게 되어있다.

건축이다. 이 건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건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출애굽기의 절반은 건축이다. 앞부분 절반은 출애굽이지만 후반부 절반은 건축이다. 어쩌면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 이것을 몰랐으니까 그저 좋은 말씀을 설교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설교한 셈이었다. 기껏해야 그것밖에 없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장래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예수 믿으면 이러 이렇게 된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허공을 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호와께서는 물질적인 재료들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인격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우리를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인격적인 재료들! 인격적인 재료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인격적인 재료들은 십자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들어내는 인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지 않는다.

중국사람이 생각하는 인격, 인도사람이 생각하는 인격, 미국사람이 생각하는 인격이 다 다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지금 사람들은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사회를 정화시킨다거나 사회를 바꾼다고 하고 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세상을 바꾼 일이 없다. 한번도 바꾸지 못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비스름한 것이 되었지 세상을 바꾼 적이 없다. 서양에 들어가서는 희랍철학과 합해져서 서양문화가 되었다. 결국 마지막에는 문화만 남는다.

한국도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 기독교 문화가 퍼진다. 살기는 좋다. 현대적이고 문명적이기 때문에 살기는 좋다. 살기가 좋아지면 교회가 필요 없어져 버린다. 유럽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지 않는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기들은 잘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고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지금 한국은 아직도 3만불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간구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아서 간다. 4만불 대를 넘어가면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문화가 발전되면 목사들이 설교할 일이 별로 없다. 다 점잖게 잘살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는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잘 산다.

그때 한국에서 새벽기도에 불이 나서 성령이 한국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있었다. 그렇게 서양에 소문이 났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지도자들이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보니까 새벽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사는 것을 보니까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자기들보다 훨씬 못하다. 가면서 속으로 비웃고 갔다는 말이 있다. 소리만 많이 지르지 와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지금도 기독교를 평가할 때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했는지, 또 사회윤리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가 된 것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생활은 전혀 아닌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점잖게 된 사람들도 문제가 된다.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사는 나라는 얼마든지 잘 산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같은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어디 가서 봉사를 하라는 이야기나 하지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북유럽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영세중립국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수당이 나와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6개월은 보장하지만 앞으로 잘 살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굳이 직장을 갈 필요도 없다. 직장에 가는 것은 취미로 가는 것이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좋으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를 많이 해보았자 잘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꼭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공부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나 공부를 한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는가? 한다면 자살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할 것

이 없다.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문화가 압도해 버리니까 교회가 필요 없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땅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인들 이보다 더 좋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겠는가? 휴거를 한다고 듣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유럽에 가보니까 성당들이 엄청나다. 옛날에 그런 집을 지었다는 것이 엄청나다. 그런데 촛불을 얼마나 켜는지 내벽이 시커멓다. 촛불을 계속 켜니까 대리석이 그 올려졌다. 한쪽에 가니까 동전 가지고 사는 촛불이 있었다. 병뚜껑 같은 촛불이 있다. 그것을 하나 사서 놔두고 기도하고 간다.

어떤 젊은 남녀가 와서 초를 하나 사서 놔두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갔다. 아마도 연애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았다. 모두가 거기에 와서 그렇게 하고 한다. 촛불이 꺼지지 않고 수백개가 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정도 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 넓은 홀에서 한쪽에서 2~30명이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여행객도 오는 것 같았다. 지금 그런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든 뭐든지 앞서서 살만한 세상이 돌아오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진다. 교회가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교회는 없어진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나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물질적인 재료들로 시작했던 창조와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다.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망했다고도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창세기를 보면 3장부터 11장 중반까지 바벨로 가는 길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길이다. 짙막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인간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가는 길이 결국 바벨이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고, 이것이 문화이다.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는 각 있는 돌로 쌓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문화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공을 가해서 돌을 다듬어서 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자연적인 것이라야 된다.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바벨에 가서 끝나는 한 단원의 역사가 있는데, 인류사를 함축해놓은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가인과 아벨은 싸워서 형은 아우를 죽였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랬다. 그러니 다른 데야 말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분열되었는데, 어디 가서 연합이 되겠는가?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자는 약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 기독교도 약자일 때는 어린양처럼 순하다. 그러나 강자가 되면 호랑이처럼 강해진다. 십자군 전쟁이 그런 전쟁이다.

200년 동안 자기들의 강한 힘을 가지고 망할 때까지 중동을 휩쓸었다. 기독교도 힘이 세지면 호랑이가 되고 만다. 힘센 종파가 힘 약한 종파를 핍박한다. 다르다.

순복음 교회가 처음에 이단이라고 했지만 순복음 교회가 워낙 커져 버리니까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한기총 회장을 순복음 교회가 목사가 하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써있었다. 이단이라고 했던 그 교회 목사가 지금 한기총 회장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결론은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지 유대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결국은 도로 바벨이다.

이스라엘도 정성들여 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이라는 아들, 하늘로부터 온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12지파 이렇게 나가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결국은 분열되어서 망한다.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있고, 별 일이 다 있었어도,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별별 것을 다 했어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지막은 바벨탑이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선악과 없는 인간, 선악과의 독이 없는 그 인간으로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불가능하다. 어떤 종교도 불가능하다. 인격적 재료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밖에는 나올 데가 없다. 왜냐하면 늘 반복해야 되지만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정한 격이다.

우리가 같고 닮은 어떤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격이

인격이다. 소는 소격, 개는 개격, 말은 말격이다. 바꿀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을 훈련시킨다고 인격이 되겠는가? 소를 훈련시킨다고 인격이 되겠는가? 격이 안 된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격이라는 말과 또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격이라는 말과 지금 내가 말하는 인격은 다른 말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격을 말한다. 전기로 볼트를 정해놓는다. 정격전압이라고 한다. 격자를 그런데 쓴다. 100볼트인지 220볼트인지 정해져있다. 이것을 위반하여 사용하면 불이 난다. 100볼트를 사용하는 데에 220볼트를 넣어버리면 불타버리고 만다. 220볼트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100볼트를 넣으면 기계가 빌빌 거리고 안 돌아간다. 격이 맞아야 된다.

이 격!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격으로 만들어진 나라라야 된다.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이미 그 격을 벗어났다. 하나님 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격이 벗어났다.

만물이 다 참되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만 부패하다고 했다. 왜 그랬는가? 부패했다는 말이 위치를 이탈했다는 말이다. 위치가 없으니까 결국 부패한 것이다. 인격도 아니고 소격도 아니다. 천사도 아니고 신격도 아니다. 신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니까 부패한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서 망한 것이다. 천사같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다. 인격은 없어진 것이므로 망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 격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격에서 벗어났다. 격에서 벗어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안 된다. 만나를 먹여도 안 되고, 생수를 먹여도 안 되고, 무엇을 먹여도 안 된다.

이 격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격을 바로 잡은 것이다. 누가 사람인가? 누가 참인가? 누가 진실인가? 누가 진짜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진실인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이 진실인가? 이 싸움이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없는가? 이 싸움이다.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면 인격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격을 벗어난 것이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했을 때, 만일 뛰어내렸다면 인격을 벗어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나를 사람 되게 할 수가 없다.

인격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연합하려면 이 인격이라야 연합이 가능하다. 무엇으로도 연합이 불가능하다.

아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똑똑한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겠는가? 한 격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하다. 어떤 면으로는 한 운명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하다.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연합이 불가능하다.

사랑방에 보니까 연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유대교적인 연합이냐? 히틀러적인 연합이냐? 이런 여러 가지 연합을 비교해놓았다. 심지어는 신천지 연합이냐는 말도 나왔다.

참된 연합은 격이 맞아야 연합이 가능하다. 격이 틀린데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겠는가? 소와 사람은 연합이 불가능하다. 개와 사람이 같이 산다. 개는 사람 행세를 하고, 사람은 개 행세를 하지만 그것은 연합은 아니다.

요즘 어떤 개는 미국에서는 상속을 몇 백만불을 받는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연합 같지만 그것은 연합이 아니다. 연합이 될 수 없다.

꼭 사람이라야 사람과 연합이 된다. 하와를 지을 때, “사람(아담)이 혼자 사는(독처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고 한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갈빗대를 뺀 것이 아니다.

“흠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창2:19).”고 한다.

그러면 왜 그 다음에 바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고 하는가?

그 사이에 한 말이 생략되어있다. 그렇지만 배필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 이름을 지어보았지만 배필이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생물이 있었다. 거기는 힘센 놈도 있었고, 예쁜 놈도 있었고 별 것이 다 있었는데 다 배필이 될 수 없다. 왜? 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합은 한 생명이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갈빗대를 뺀 것이다. 서양 사람들이 갈빗대를 뺀 것을 해석하기를 남녀동등권이라고 해석했다. 동반자라고 해석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문화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갈빗대는 생명의 상징이다. 사람이 죽은 채하고 있으려면 다른 데는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속일 수 없는 데가 갈빗대이다. 이것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죽은 체를 해도 갈빗대는 움직여야 된다. 생명의 상징이다.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했다.

한 생명이라야 연합이 된다. 한 생명이라야 배필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배필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어떤 도덕성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성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갈빗대에서 나와야 된다. 그분의 갈빗대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그분의 갈빗대를 얻겠는가? 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서 밖에 우리의 갈빗대가 없다. 우리와 같은 갈빗대가 거기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갈빗대로 나를 재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겠는가?

옛날에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았다.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았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더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지는가? 모셔지는가?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무슨 의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에게 앉으라고 한다면 앉겠는가? 그냥 생각이 그랬다.

그분이 우리를 만날 자리를 미리 마련했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 코스로 가면 지성소로 들어간다.

예수께서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나를 포함할 수 있는 자리에 오셨다. 자세히 보면 그분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그분과 우리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데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분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같이 살겠는가? 결혼하면 그런 사람과는 같이 못 산다. 썩어서 송장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자는 것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겠는가? 자매님들 자신 있는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사람과 같이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좋을 것 같지만 같이 못 산다.

배필이 될 수 없다. 비슷해야지 살지 너무 차이가 나면 못 산다. 턱걸이 결혼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애먹는다. 비슷해야 잘 산다. 서로가 만만해야 잘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할 자리를 자기 스스로 마련해놓았다.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았겠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그런데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겠는가? 그 아들 안에 우리를 포함하려고.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이 그 말이다. 독생자를 준 것이 은혜인 것은 그분 안에 나를 포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의 고통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것이 은혜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돌아다녀보라. 되는가? 절대로 안 된다. 하나 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환상 속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우리가 이미 포함되었다. 그 죽으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데서는 포함될 데가 없다. 포함되려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산출해 놓았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예수께서는 건축의 재료들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산출해 놓았다.

건축의 재료는 연합이 가능해야 된다. 연합이 가능해야 건축이 되지 연합이 안 된 것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다시 물질적인 이야기이지만 집을 지으면 시멘트와 철근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 시멘트는 단단하지만 잘 깨진다. 철근은 인장력이 좋지만 시멘트처럼 단단하지 못하다. 이 둘이 합해야만 기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연합이다.

건물은 전부 그렇게 짜여져 있다. 서로 없으면 안 될 것들끼리 짜여져 있다. 그것이 잘 되면 집이 견고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집이 허물어진다.

흙과 돌을 섞어 놓으면 붙어있지 않는다. 쇠와 흙을 붙여놓으면 붙어있지 않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큰 신상이 그렇다. 위에는 금으로 되고 놋으로 되고 근사하게 되었는데, 발은 쇠와 흙이 버무려진 것이다. 공중에 뜨인 돌 하나를 맞으니까 박살나고 말았다. 연합이 안 된 것이 있었다. 금과 구리는 붙을 수가 있는데, 흙과 쇠는 붙지 않는다. 꿈도 참 신기하다. 그것이 바벨론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연합이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재료들을 생산해 놓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와 연합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말이다.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냐고 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점점 못 알아듣는 말이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것도 모르는 말이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고 했다. 그 구절이 없었더라면 요한복음 3장이 전체적으로 먹통이 되고 만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말이다.

옛날에 나는 그 구절을 못 봤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따라 온 구절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했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었는지 모르겠더라. 오히려 나에게 의문만 던져주는 그런 분이였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 생명을 구원한 분이다. 내 인격을 구원한 분이다. 하나님이 만일 아무리 위기에서 건져주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내가 예수께로 인도되지 않았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가시적인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도로 바알로 돌아가 버린다.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예수가 없으면 도로 바알을 섬기게 된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도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

예수는 인격적인 재료들을 생산해내었다. 사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하는 일이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을 재미있게 해석한 분이 있다. 워치만니 책에서 보았는데,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그물로 고기를 잡던 데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는데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참 신기하다.

그런데 바울은 직업이 천막 치는 사람이다. 집 짓는 사람이다. 바울은 건축을 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그냥 그물로 고기만 잡아다 놓았지 집을 짓지는 못했다. 바울은 천막 치는 사람, 건축업자였다.

사도요한 그물을 낚다가 만났다. 그물을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제일 오래 살면서 그쯤 되니까 교회가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단사상이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그물 낚듯이 기워서 봉해 놓은 사람이다. 얼마나 신기하게 해석했는가. 정말 신기했다.

직업대로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써서 결국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이다. 직업이 그런 사람은 생각도 그렇게 하기 쉽다.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던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한다. ‘알았죠? 알았죠?’ 한다. 옛날에 김**형제님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간증을 하면서도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듯이 ‘알았죠? 알았죠?’ 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위임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교회 건축에 두어야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에 그쳐버리면 안 된다.

설교 안 들어도 좋은 사람은 많다. 훌륭한 사람은 많다. 공자님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의 인격을 보면 예수님과 다 비슷하

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둘이 싸우다가 심판을 해달라고 왔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남대문에 문턱이 없다고 하고, 한 사람은 남대문에 왜 문턱이 없느냐,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디 있느냐고 둘이 우기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문턱이 없으면 문이 아니라는 사람은 내가 만일 틀리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둘이 송사를 갖고 와서 공자님에게 그 문제를 놓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 공자님이 문턱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 사람 손을 들어주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놈이 안 죽고 살았다.

그들이 간 다음에 제자들이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놈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그놈 손을 들어주느냐고 했더니, 그놈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놈이 죽을 것 아니냐, 살려주어야지 어떻게 죽게 놔두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예수님 마음과 뭐가 다른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훌륭한 분은 많다. 나를 구속할 분이 없는 것이지 세상에 훌륭한 분은 얼마든지 많다. 세상 사람들은 공자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공자님을 알면 예수님과 비슷하다. 어쩌면 혹시 더 나을지도 모른다.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으로, 인품을 따진다면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중국의 좋은 책들은 정말로 좋은 책들이다.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더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 중용이라는 책이 있다.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면 한 가운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적당한 것을 말한다고 한다. 딱 적합한 것을 중용이라고 한다. 한 가운데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딱 적합한 것을 하라는 뜻이다.

왕을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책이 있다. 전부다 왕도이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왕도이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다르다. 지금 보라. 공산당인데도 공산당 같지 않은 것이 많다.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다.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아들 구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성인들이다.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나를 구속할 이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 사명은 동산을 회복하는 일이다. 새 예루살렘은 동산의 회복이고 완성이다.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주 귀중한 자리를 위임 받았다.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건축을 못하면 헛일이다. 재료를 쌓아놓으면 짐만 되고 만

다. 건축하는데 보니까 온갖 것이 다 들어오는데 놔둘 데가 없다. 계속 쓰니까 그렇지 안 쓰고 놔두었다가는 다 썩는다.

우리가 건축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너무 귀중한 자리에 부름 받은 것이다. 개신교처럼 개인 구원이 아니다. 카톨릭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 단체적인 나라의 이상은 맞다.

오늘 우리는 건축자로 부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좋은 건축자가 되기를 바란다.

[간증 1]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동감이 되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건축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다, 어디서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고 연합이 되려면 건축의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되어지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고, 격이 같아야 연합이 된다. 같은 격으로 짜여져야 연합이 된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 같아야 연합이 된다고 말씀하고, 또 예수 안에 있어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참 다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 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목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 2]

목사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목회가 건축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열심히 했구나. 막무가내로 뛰어온 인생인데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축 재료가 중요하다. 그 건축 재료는 오직 십자가에서 밖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고~~~(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끔김)

[간증 3]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원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십자가 구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가면 부활이고, 부

활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고 예수의 몸인데 우리가 창조된 것도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소원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의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최근에는 대구교회 순모임에도 참석해보고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교회구나. 누구를 만나보아도 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유기적인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지도자인 목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예를 들어 방향을 설정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아니면 다른 부서를 세울 때나 이럴 때 지도자로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목사님께서 모델로 교회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준을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현래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사역한다는 말은 말씀을 풀어낸다는 말이다. 생명을 말로 하는 것이다. 전도하려면 말이 필요하다. 사역하는 것은 생명을 말로 풀어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 안에서 재료도 생산되고, 연합도 나오게 되고, 건축도 되게 된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 이 만물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만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있다.

알고 보면 이 세상도 어떤 말로 만들어져 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두 말이 딱 나온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 말이 나온다. 그것이 노선이다.

하나는 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라는 것이다. 이 두 노선이 갈라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말만 교회이지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다.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설교가 90%는 다 선악을 가르치는 설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선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로 합해지지 않는다. 너무 그것이 많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 판단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말이 지배한다. 세상에서 대학은 수사학부터 시작했다. 말로, 웅변술, 수사학이 대학의 시작이다.

세상은 말이 지배한다. 하여튼 말씀에 치중해야 된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말씀만 확실히 공급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행정이니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는 행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말씀으로 다 된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

아이들이 밥 먹고 나면 알아서 놀고 챙기고 다 한다. 먹으면 가르치지 않아도 잘한다. 못 먹으니까 안 된다. 다른 것을 먹으니까 잘못되는 것이다.

행정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분열되고 만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견이 들어가게 된다. 의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진다. 내 의견이 이러면 다른 사람이 의견은 저렇다.

내가 처음 목회하러 갔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 같다. 가서 보니 교회 사정이 딱 눈에 보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경영자로 생각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분사분 고치기 시작했다. 겉으로 나타나기에 잘 나타났다. 한 4년 동안 잘했다. 누가 봐도 목회를 참 잘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교회가 규모가 짜여져 가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자기 계획과 맞지 않는 것이다. 뭔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부 원로목사에게 계속 고자질을 했다.

나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결국 거기서 사고가 터져서 전반기 4년은 내 뜻대로 되었는데, 후반기 4년은 싸움만 하다가 끝났다.

의견은 반드시 의견이 나온다. 주장은 또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된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간증하라고 하면 습관이 되어서 나와서 다 주장을 했다. 뭔가 다 주장을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간증을 하지 주장하지 말라고 했다. 다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 순수하게 자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 순수하게 간

증하는 것이 잘 안 된다. 뭔가를 섞어서 가르치려고 한다. 뭔가 섞어서 자기주장을 하게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분열이 된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지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교역자부터 주장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말씀만 분명하고 내가 말씀과 하나 되면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좀 잘못되어도 상관없다.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한다.

나는 지금 교회에 손대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 자라나지 않은 아이가 뭘 하겠는가? 자라야 뭘 한다. 생명을 먹고 자라야 뭘 한다. 뭘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잘 먹이면 된다. 그것이 제일이다. 그것이 내 방법이다.

잘 먹이자! 영양가 있는 것으로 먹이자! 내가 그런 것을 먹어야 먹이지 내가 먹지 않고 먹일 수 있는가? 내가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영양가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엄마가 좋은 것을 먹어야 젖이 좋은 것이 나온다. 그냥 시시한 것을 먹으면 젖도 나쁜 것이 나온다. 엄마가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아기가 설사를 한다. 신기하다.

여러분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내가 찬 것을 먹고 젖을 주게 되면 아기가 설사를 하게 된다. 내 먹는 대로 아기가 먹게 된다.

내가 먹는 대로 교인들이 먹게 된다. 지금 문제는 자기에게 양식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성경에 있으니까 교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가르친다. 이것은 독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먹어보고 내가 먹어서 영양이 되고 약이 되는 그것이 나와야 된다. 내가 실험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내놓으면 안 된다. 성경을 다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모르는 것은 덮어두면 된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꼬집어내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다. 내가 먹어보고 주니까 쉽다.

나는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주석에 있는 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생각했다. 머리로 이해된 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먹은 것을 주어야 된다.

양식만 잘 먹이면 다 알아서 한다. 아주 신기하다.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젖만 먹었는데 매일 새로운 일을 한다. 어떻게 아기가 커서 말을 하는가? 너무 신기하다. 교회는 볼수록 재미가 있다.

[간증 3]

너무 귀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방향을 설정하거나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소그룹을 새로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현래 목사님]

그런 것은 현실적인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다 없는 것인데 일부러 새로 설치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다른 교회에서는 해도 우리교회에는 안 될 것도 있다. 대상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항상 보아야 된다. 다 보아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집사 노릇을 옳게 할 것이다.

옛날에 집사는 주인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청지기가 그런 것이다. 내가 사정을 알아야 한다. 내가 사정을 모르면 안 된다. 전혀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

잘 살펴야 된다. 판단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 그 눈높이만큼 주어야 된다. 밥도 젖 주다가 이유식 할 때가 언제인지를 책만 보고 6개월이면 이 이유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아기가 먹을 때가 있다. 그때 이유식을 해야 된다. 젖만 가지고 부족할 때 해야 된다.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할 때가 있다. 내가 교회와 함께 살아야 그것을 알게 된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세계에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

같이 살아야 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노래가 있다. 함께 가야 된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